소년단

1956. 12

어린 조각가

해주 제2 인민 학교 3분단 정 랙정 동무는 향토 연구 크루쇼크 공작반의 재간 있는 어린 조각가이다.

그의 재간 있는 솜씨는 진흙을 빚어 하나 둘… 만드는 조각과 함께 늘어 간다.

일기책 펼쳐 놓고

류 연 옥

그림 리 건 영

일기책 펼쳐 놓고

다정한 손'길인 듯
반가운 일 알려 주는 듯
함박눈 나리는데
꽃송이로 나리는데

나는 펼친다
두툼한 나의 일기책.

자랑도 떨친 일
잘못도 고친 일
즐거움도 어려움도 부끄러움도
또박또박 적어 온 일기책!

한장 한장 번지면
조용하니 읽어 나가면
꽃송이처럼 피여온다.
초롱'불처럼 밝아온다.

일년 열 두 달
걸어온 하루 하루가……

그 하루 하루를 보내고
새 하루 하루를 맞으며
나의 희망은, 나의 기쁨은
자꾸만 눈송이처럼 쏟아지누나.

나는 못하는 일 없어

새하얗게 회벽 칠 하고
둥지에 새 깃 깔아 주고
꼬마 동물원 귀여운 식구들
봄맞이 집들이하던 날,

토끼는 깡충깡충
다람쥐는 뱅글뱅글
고숨도치는 딩굴기만 하고
염소는 매 매.

나는 동물 크루쇼크원
다람쥐 시중들기 정말 재미나
날마다 밤 한톨 갖다 주마
체'바퀴 자꾸만 돌리려무나…

토끼는 새끼 한배 낳고
다람쥐 체'바퀴 돌리는 재주가
늘고
고숨도치는 그저 앓지도 않고
염소 뿔도 수태 자랐을 때.

나는 숙제 한번 빼친 일 없지,
박제 표본 만들기도 누구보다
선수.
운동장에서 혼자 뽈을 몰아가도
멋지게 꼴을 넣고야 말지.

정말 나는 못하는 일 없어
뛰뛰길 해도 누가 날 따를 수
있나.
연단에 오르면 나는 말도 잘해
떠나갈 듯 박수를 받는다.

혼자선 갈 수 없다

분단에서 맡긴 일
어째 나는 하지 않았나?
철이를 도와 주마
약속한 일 어째 잊었나?

세번 찾아가 만나지 못했다고,
핑계만 댄다구 핀잔만 주었지.
2점 맞고도 놀기만 한다구
코웃음 쳤지, 나무람만 했지…

굴렁쇠 좋아만 하는 순길이도
게으르다 돌려 놓았던 아이,
석달 열흘 하루도 안 빼고
3반 반장은 찾아 갔다는데

풀다 풀다 못 풀어도
숙제 문제 지긋이 깨쳐 준 보람
후'날엔 지혜가 샘처럼 솟아
떳떳한 우등생 되였다는데……

아직도 우리 반에는
뒤떨어진 동무가 남아 있구나.
그런데 어째서 나만 잘하려 했나?
혼자만 앞서려 했나?

이제사 나는 알겠다.
우리 반 훌륭히 되는 길
혼자선 갈 수 없다.
열 동무 힘 합쳐야 되는 것을—

더좋은 새해 맞으려

섣달 그믐날
나는 세운다.
새 자랑 차지할 계획을
나의 새해 계획을.

한살 더 자란 튼튼한 몸
지혜도 많아질 새해!
더 좋은 선물 가지고
새해는 찾아 오리니

새 결심 다짐하는
우리 학교 동무들,
꽃동산의 주인 되려
저마다 시방 생각하리라.

도서실 책 장마다 가득 가득히
남수는 귀한 책 마련하고 싶겠지.
성수도 과학 연구실 넓은 방에
더좋은 교재 장만하려 하겠지…

새해엔 우리 동물원에
다정한 식구 듬뿍 늘궈야지.
나는 크루쇼크 동무들과 함께
깨끗한 우리도 또하나 만들어야
겠다.

일년내 함께 살아온 책
내 마음 잘아는 마음의 거울,
일기책 맨 마지막 장에
나는 쓴다. 커다란 글씨로—

《더 좋은 새해 맞으려
오늘도 래일도 준비하자.
아름다운 내 조국 세우려
동무와 튼튼히 손잡고 나가자》.

—— 팔프 공장을 찾아서 ——

《동무들! 종이의 원료는 무엇일가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나무지요》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며칠 전의 팔프 공장 견학을 통하여 《갈》로도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나라 앞날의 제지 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갈로 어떻게 종이와 비단천을 만들 수 있을가?》. 우리는 이런 의심을 품게 되였던 것입니다.

우리 대 위원회에서는 제때에 우리들의 이 의심을 풀기 위하여 팔프 공장 견학을 조직해 주었습니다.

× ×

갈을 실은 배가 자주 와 닿는 압록강변의 공장 뜰에는 갈더미가 자꾸 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이 쌓인 갈더미들 사이에는 벼'짚과 강냥'짚 더미도 있었지요.

우리는 먼저 이 공장 원료부로 갔습니다.

넓은 고무 피대처럼 천천히 도는 벨트 꼼베야 우에 담겨져 가는 갈 속에는 드믄드믄 벼'짚과 강냥'짚도 섞이여 있었지요.

《벼'짚과 강냥'짚으로 종이를 만드네!》하고 우리는 머리를 끼우뚱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되는 우리들에게 공장 견학은 점점 더 재미있었습니다.

기계에 실리여 온 갈과 15~30%의 벼'짚, 강냥'짚은 소여물처럼 잘게 썰어집니다. 이것을 《짚》이라고 하는데 이《짚》은 바람에 풍기여 먼지가 다 떨어진 다음 《목부》라는 가마에 들어가지요.

《야! 굉장하구나》. 우리들을 놀라게 한 것은 4층까지 닿은 가마에서《짚》은 약물에 섞기여 오래 동안 삶아지는 것이였습니다.

류황과 다른 약을 섞어 삶으면 연한 톱밥 같은 팔프 섬유라는 것이 만들어지지요.

한 가마를 삶는데는 몇시간이나 걸려야 하는가고 물었더니 안내자 아저씨는 그전엔 열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여덟시간 반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의 힘으로 증기 보내는 기계 장치를 새롭게 했다니까요.

한번에 삶는 것만 해도 30톤이나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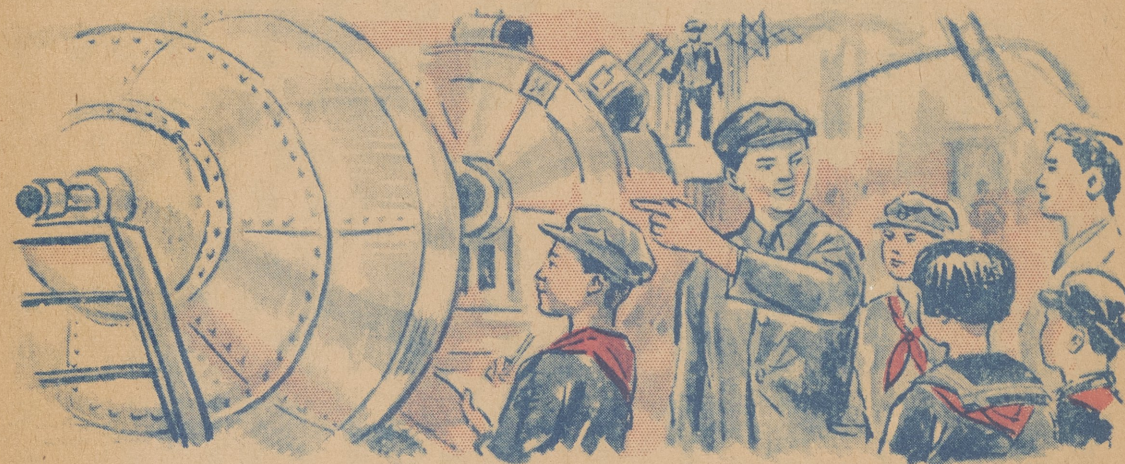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톱밥 같은 찌꺼기들이 어떻게 종이로 될가?》. 이렇게 속삭이던 우리들은 다음 기계에서 부드럽게 찧어 죽이 되는 것을 보구야 의심을 풀게 되였지요.

제지실에서도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마다 모두 새롭고 흥미있는 것 뿐이였지요.

더 좋고 훌륭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잉크 번지는 성질을 없이하며 하얗고 매끈매끈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은 질 좋은 종이를 만들려고 순 두부 같은 종이죽을 찬찬히 들여다 보며 재싸게 기계를 돌보고 계셨지요.

우리는 종이 한장에도 로동자 아저씨들의 힘과 땀이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종이는 피

대처럼 감겨 돌아가는 넓은 모포에 헐쳐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는 뜨거운 쇠몽둥이 사이에서 마르면서 매끈하게 다려지지요. 다된 종이는 말'대에 감겨져 나오며 큰 통구리를 이룹니다.

《야! 멋있는 종인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웨치며 갈과 벼'짚, 강냉'짚으로 된 하얀 종이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로 어떻게 비단천을 만들가?》하는 것이 몹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 아저씨께 갈로 비단천을 짠다는게 정말인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정말이구 말구, 우리 공장 실험실에선 벌써 비단천을 짜는 원료인 인견팔프를 만들었지요. 명주천 보다 못지 않는 갈로 만든 고운 옷을 2년 후이면 동무들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천의 원료를 바로 우리 공장에서 만들게 되지요》하고 빙글빙글 웃으셨습니다.

정말 과학의 힘은 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갈로 종이를 만들던 것을 지금은 벼'짚과 강냉'짚도 섞어서 똑같은 종이를 만들며 또 갈로 천을 짤 수 있는 실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참말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저씨가 실험실에서 가져 온 하얗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비단실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이런 고운 실을 만들어요!》하고 감탄들 했지요.

《이처럼 훌륭한 실을 뽑을 수 있는 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벼'짚이나 강냉'짚, 조'짚으로 종이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지요》. 안내자 아저씨의 이야기 처럼 노전이나 틀고 불이나 때는 줄로만 안 갈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정말이였구나!》. 모두 이렇게 속삭이며 공장을 나선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손으로 종이를 만든 것처럼 공장 기사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학교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해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의주 사전 부속 인민 학교 대
제2분단 조 경 자
그림 오 영 복

—앞으로 어떤 옷을 입게 되겠는지 아느냐?

네가 무엇을 묻는지 알겠다. 1958년부터는 청진 방적 공장이 돌아간다니까 인견사로 짠 천으로 옷을 해 입게 될게고 또 로초(갈)로써 인견 팔프를 만들고 석회석으로 만든 카바이트로도 실(화학 섬유)을 만들게 되니까… 그렇지! 목화, 고치, 양털 그리고 나무, 갈, 돌로 된 옷도 입게 된단말이야

—그렇게 가지수만 많아지는 줄 아니?

—얜, 급하기두, 이제 5개년 계획 기간에 1.5배 내지 2배로 천들을 더 많이 짠단말이야, 그뿐인 줄 아냐? 염색 가공 공장도 래년에 다 건설되니까 색갈 아름답고 무늬 고운 천들이 나오지!

—그럼, 너, 종이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니?

—그것도 모르겠느냐! 나무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종이는 모두 갈, 벼'짚, 강냉'짚으로 만들어 내게 됐지 뭐! 이젠 네게 하나 묻겠다. 1961년에 가서 신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냐?

—너만 잘 아는 줄 아냐, 북반부에 사는 전체 사람들에게 1년에 1.4켤레씩 돌아갈 만큼 만들어 낸단말이야!

—그때엔 우리 인민들이 더 잘 살게 되겠지!

뮌하우젠의 모험

에 • 라 스 페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 전에 살았던 뮌하우젠 이라는 독일 군인의 모험 이야기를 에•라스페라는 작가가 글로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독일 아동들과 쏘련 아동들이 재미나게 읽는 이야기로써 이가운데서 그들은 커다란 환상과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런 각도에서 뜻 있는 것이 될것이다. (편집부)

다락지붕에 올라간 말

나는 말을 타고 로씨야로 떠났습니다.

겨울이였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말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나 잠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지치고 지쳐서 하마트면 안장에서 떨어질번 하였습니다. 어디를 둘러 보아도 하루'밤 묵어갈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가도 가도 마을은 한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빈 벌판에서 하루'밤을 자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보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었습니다. 다만 말뚝 하나가 눈 우에 뿌죽 나온 것이 보일 뿐이였습니다.

나는 이 말뚝에 추워서 떠는 말을 매고 나도 눈 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래 동안 잠을 잤습니다. 내가 잠을 깨였을 때에는 내가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더 바로 말하자면 마을이 아니라 그리 크지 않은 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집들이 빙둘러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온 것이겠습니까? 하루'밤 사이에 어떻게 여기 이런 집들이 갑자기 자라났겠습니까?

그런데 내 말은 어디로 가버렸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한동안 알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귀에 익은 말 우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 말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말 우는 소리는 그 어디 머리 우로부터 들려 왔습니다.

나는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했더니

이게 웬 일입니까?

내 말은 글쎄 종을 달아 맨 높은 다락지붕 우에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 다락집 십자가에 매여 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곧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거리는 온통 눈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고 말들이고 모두 깊은 눈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락 우에 있는 십자가 꼭대기만이 뿌죽하니 들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십자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조그마한 말뚝같이만 생각되여서 나는 이것에 내 말을 매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이 내가 잠이 들어 자는 동안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서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르르 땅바닥으로 내려 오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잠간 동안 궁리를 하고 난 나는 권총을 꺼내들고 똑바로 겨냥을 한 뒤에 바로 말 목걸이를 쏘았습니다. 나는 아주 총을 잘 쏘는 사람이였던 탓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목걸이는 두 쪼박으로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말은 당장에 내 앞으로 뚤룽 떨어졌습니다.

나는 얼른 말을 잡아 타고 바람처럼 앞으로 내 달리였습니다.

썰매를 끄는 이리

그러나 나는 겨울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좋지 않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것보다는 썰매를 타고 려행하는 편이 썩 낫다고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썰매를 한 틀 사서 이것을 타고 푸근푸근한 눈 우로 쏜살 같이 달리게 되였습니다.

저녁 녘이 되여 나는 어느 수풀로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나는 졸음이 와서 건득건득 조을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말 우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지 않았겠습니까. 했더니 이'발이 무시 무시한 아가리를 쩍 벌리고 내 썰매를 다좇아 오는 무서운 이리 한 마리가 때마침 비치는 밝은 달빛에 똑똑히 보이였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썰매 바닥에 움추리고 누워서 너무나 무서운 김에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미친 듯이 그냥 내달리는 것이였습니다. 이리의 이'발이 부디치는 떡떡 소리가 바로 내 귀'전에서 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노라고 이리는 조금도 내게는 마음을 두지 않는 모양이였습니다. 이리는 바로 내 머리 우로 썰매를 성큼 넘어 뛰더니 가엾은 내 말께로 달려 들었습니다.

눈 깜작 할 사이에 말 뒤'몸뚱이는 이리의 무서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 앞 몸뚱이는 그래도 너무나 무섭고 아파서 여전히 앞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는 자꾸만 내 말을 먹어 들어 갔습니다.

나는 얼마 지난 뒤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 채찍을 집어들고 때를 놓칠세라 이 욕심 많은 이리를 족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여났습니다.

아직 이리에게 채 먹히지 않은 말의 앞 몸뚱이는 말 목걸이를 벗어나 눈 우에 나딩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리는 말 대신 말 자리로 들어서게 되여 말이 메였던 멍에를 메고 말에 매였던 고삐에 몸뚱이가 매여지게 되였습니다.

이리는 고삐를 벗어 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는 말 대신 썰매를 끄을게 되였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리를 족쳐 댔습니다.

이리는 내 썰매를 끄을며 앞으로 앞으로 자꾸만 내달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나 빨리 달렸던지 두 세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뻬쩨르부르그 거리로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놀라난 뻬쩨르부르그 사람들은 우루루 떼를 지어 몰여들 나와서 말 대신에 사나운 이리를 썰매에 메우고 달려 온 영웅인 나를 장하게 여겨 바라들 보는 것이였습니다.

놀랄 만한 사냥

이 거리에서는 재미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한번 나는 온 종일 사냥을 다니다가 저녁 때가 다 되여서 어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넓다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에는 오리들이 우글씨글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오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게는 총알이 한 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저녁에 나는 집에 많은 친구들을 오라고 청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오리 고기를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참말 마음 너그럽고 손님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실상 우리 집에서 차리는 음식은 맛 있기로 온 뻬쩨르부르그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오래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게는 배낭에 비게 한 조박이 남아있는 것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만세! 이 비게쪽이야말로 아주 좋은

미끼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낭에서 그것을 끄집어 내여서는 곧 그것을 길고 가는 노끈에 맨뒤, 물에다 던지였습니다.

먹을 것을 본 오리들은 비게쪽을 향하여 다들 헤염쳐 오는 것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마리가 먼저 비게쪽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비게쪽은 매끄러운 것이여서 오리의 내장을 쉽사리 술술 통해 나가서는 오리의 밑구멍으로 쑥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리 한 마리는 내 노끈에 꿰여지게 되였습니다.

이때에 둘째번으로 오리 한 마리가 또 비게쪽을 향하여 헤염쳐 왔습니다. 이 둘째번 오리도 첫번 오리와 마찬가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리들이 잇달아 내 노끈에 꿰여지는 것이 마치 실에 구슬이 꿰여지는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10분이 다 못가서 오리들은 모주리 내 노끈에 꿰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냥을 해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기쁨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게 남은 일이라고는 잡아 놓은 이 오리들을 내집 료리사한테로 끄을고 가는 것이였습니다.

내 친구들이 한바탕 잘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오리들을 끄을고 간다는 것은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였습니다. 나는 몇 걸음 떼였을 뿐인데 벌써 지치여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 일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글쎄 오리들이 공중으로 떠 오르며 나를 구름 우로 둥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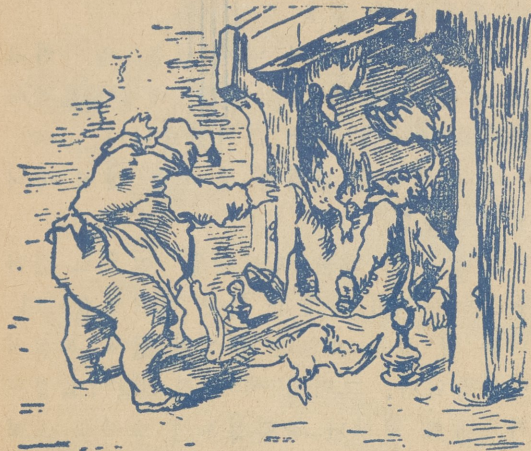
아마 다른 사람이 내 처지에 놓였더라면 얼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용감하고 갑작꾀가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나는 내 외투로 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오리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내 집 가까이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려 앉겠습니까? 그것도 수월한 일이였습니다— 나의 갑작꾀는 이때에도 내게 큰 도움이 되였습니다. 나는 서너마리의 오리의 목을 굽혀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차츰차츰 아래로 나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데도 아니요 바로 내 집 굴뚝 우에 내리게 되였습니다.

굴뚝으로 나려온 내가 아궁 앞에 별안간 나타났을 때 부엌에 있던 료리사가 얼마나 놀랐던지, 이것을 당신들이 보았더라면 정말 우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료리사가 그때까지 아직도 아궁에 불을 지피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였겠습니까.

눈먼 메'돼지

참말 나는 놀랄만한 경우를 많이 당하였습니다.

어느 때 한번은 인적 없는 숲 속을 지나가노라니 아직도 난지 서너달 밖에 안된 어리디 어린 새끼 돼지 한 마리가 뛰여 가는데 이 새끼 돼지 뒤로는 커다란 엄지 돼지가 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때 총을 한방 놓았습니다.
그러나《아차!》총알은 빗나갔습니다.

내가 쏜 총알은 새끼 돼지와 엄지 돼지 짬으로 날아 나간 것이였습니다.

새끼 돼지는 찍 소리를 지르고는 숲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였지만 엄지 돼지는 그 자리에 박힌 것처럼 뚝 멎어 움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저 엄지 돼지가 달아나지 아니할가 하고 나는 이상하게 생각키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가까이 가면서야 나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지 돼지는 눈이 멀어서 길을 알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제 새끼의 꼬리에 달려서만 숲 속을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쏜 총알은 이 새끼 돼지의 꼬리를 끊어버린 것이였습니다. 이때 새끼 돼지는 도망을 친 것이였습니다만 엄지 돼지는 새끼 없이 혼자 남게 되고 보니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리에 끊어진 새끼 돼지의 꼬리를 문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지음에 내게는 문득 한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나는 그 꼬리를 꽉 잡고 엄지 돼지를 내집 부엌에까지 끄을고 갔습니다. 이 눈 먼 엄지 돼지는 앞서처럼 제 새끼에게 이끌리어 가는 줄로만 생각하면서 순순히 내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였겠습니까—

글쎄 나는 갑작찌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리라고 이름난 해발 천오백 메터가 넘는 랑림산 속의 림산 마을에는 며칠을 두고 나리던 눈이 멎고 혹독한 추위가 심술 궂게 달려 들었습니다

이곳 인민 학교에 다니는 영수는 오늘 아침도 일직암치 책보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집은 학교에서 림철 궤도를 따라 한참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외딴 골짜기에 있는 작업장의 산지 숙사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같이 다니는 학생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은 겨울 잡아들어서 가장 맵짠 날이여서 골짜기 량쪽 산에 빽빽이 들어선 참나무, 가래 나무, 이깔나무, 박달나무, 구름 나무, 피나무들은 성애가 하얗게 붙어 바람이 불때면 더욱 추위를 느끼는 듯 애처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우짖으며 기운차게 날치던 배비새며 어치며 깨까치들도 오늘 아침에는 그리 많지도 못할 뿐더러 그의 날음도 유달리 맥없이 보였습니다. 다만 우두 머리에 새파랗게 핀 겨우사리만이 자기는 추위를 모른다는 듯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두 겨우사리처럼 추위를 모르면 좋겠다》.

영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다름박질로 골짜기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갑짜기 더 추워지며 바람이 일드니 눈보라가 휘몰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뽀얀 눈보라는 하늘 땅을 온통 뒤덮어나 버릴듯이 밀려 오고 밀려 가고 하면서 미쳐 날뛰였습니다.

영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보라를 뚫고 달리는데 갈수록 눈보라는 심술 궂게 앞으로 뒤로 우로 좌로 마구 때리며 지랄을 부렸습니다.

영수는 그만 눈보라에 너무도 시달려 세찬 눈보라가 밀려 올 때에는 돌아서서 피해 가지고 다름박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너무도 자주 밀려 오므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늦어질 것을 생각하는 조마 조마한 마음에 뒤'걸음을 쳐 눈보라를 맞받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림산 궤도를 따라 산구비를 돌아 서는데 그사이 보라질에 쌓인 높은 눈무지가 앞길을 꽉 막아 버렸습니다.

영수는 눈무지를 간신이 에돌아 지나가다가 문득《이거 큰일 났구나! 인제 원목 실은 기동차가 내려 올텐데?》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눈무지는 구비도리 이쪽이여서 내려오는 기동차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기동차가 내려오지 않는가 해서 작업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기동차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수는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그 어떤 생각이 펀득 떠 올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난 봄 영수네 분단에서는 동구 밖에 있는 제재 공장을 견학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동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서 운전수 아저씨가 궤도 우에 굴려 내린 돌덩이를 보고 일부러 기동차를 세우고 그것을 치우면서 기동차나 기차는 궤도 우에 조그만한 장애물이 있어도 탈선하게 되며 전복한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거나? 이걸 그냥 두구 가선 안될텐데».

영수는 초조히 서서 생각하다가 눈무지를 치워버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많고 도구도 없으며 더우기 학교에 늦어질 것이 걱정되였습니다. 그는 그만 단념하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멀리서 «빽—»하고 기동차의 고동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매아리쳐 왔습니다.

인제 기동차가 원목을 싣고 내려올 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생각 했습니다.

«기동차는 영낙 없이 전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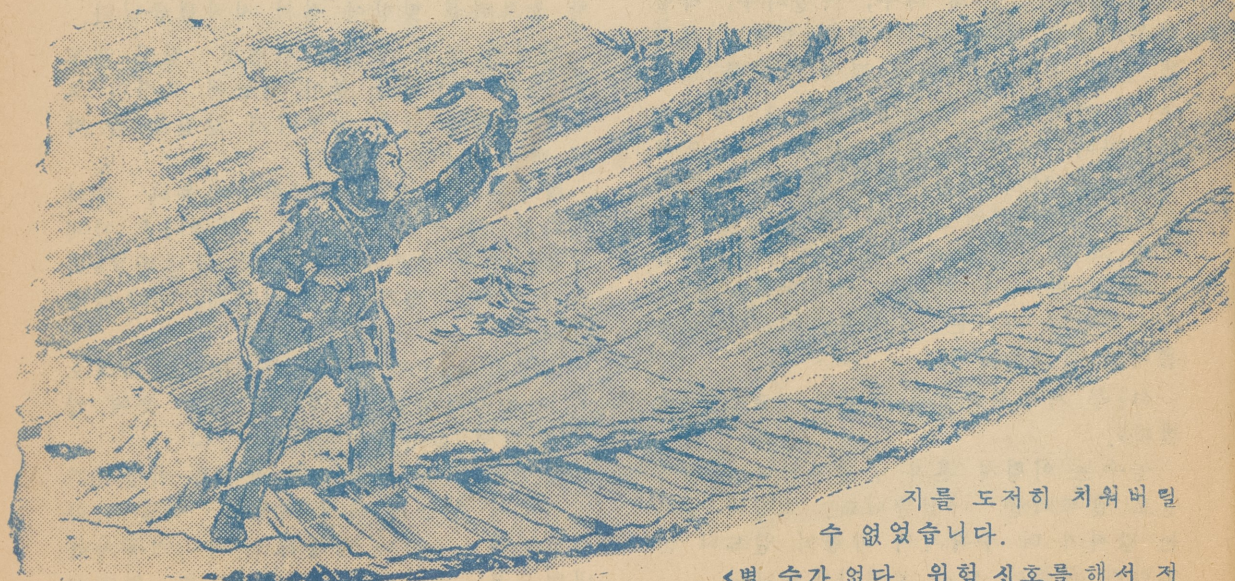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운전사 아저씨와 조수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나 그들은 언제나 그저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운전사 아저씨는 핸들을 잡았던 손을 들어 쾌활하게 소년단 경례를 하셨고 군대에 나간 형님 얼굴과 비슷이 생긴 명랑한 조수 형님은 소년단 노래를 불러 주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원목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영수는 곧 눈무지에 달려 들었습니다. 눈보라질에 쌓인 것이기 때문에 여간만 굳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손으로 파던지기도 하고 두 발로 밀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술 궂은 눈보라는 계속 휘몰아 치기 때문에 자리가 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발과 수갑안에는 눈이 가득 가득 들어가 발은 저려오고 손은 시리다 못해 마치 날카로운 송곳으로 푹 푹 찌르는 듯 그냥 저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참 애를 쓰는데 아니나 다를가 원목을 태산처럼 실은 기동차가 고동을 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눈보라 속으로 아득히 보였습니다.

영수는 초조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야 혼자 힘으로는 눈무

지를 도저히 치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별 수가 없다. 위험 신호를 해서 저쯤에서 미리 정차시켜야지».

영수는 구비도리 저쪽으로 달려가면서 무엇으로 신호를 해야 하나? 하고 궁리했습니다. 핏득 목에 맨 붉은 넥타이를 내휘두르면 되리라고 생각키웠습니다. 넥타이를 불야 불야 푸는데 기동차는 어느듯 철교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궤도 한복판에 서서 붉은 넥타이를 기'발마냥 높이 높이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기동차는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아이, 이걸 왜 보지 못할가? 장님이 됐나».

영수는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도 야속해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동차에서 보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였습니다. 눈보라가 이만저만 치는 것이 아니고 더우기 그 사이 영수의 옷이며 모자에는 온통 눈투성이가 되여서 잘 보이지 않을 수 바께 없었습니다.

영수는 발돋음을 하고 멀어져 오는 팔에 더 힘을 주어 붉은 넥타이를 높이 높이 휘저으면서 목청껏 고래 고래 웨쳤습니다.

«세우세요 위험합니다. 아저씨! 궤도 우에 눈무지가 쌓였어요, 아이 눈무지가 쌓였다니깐요, 빨리 세우세요».

그러나 얄미운 눈보라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빠른 속도로 밀려오드니 영수의 몸을 사정 없이 휘갈기고는 고함소리까지 냉큼 삼켜 버리는 것이였습니다.

기동차는 그냥 쏜살처럼 달려 내려 왔습니다. 백 메터, 팔십 메터,

영수는 왈칵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하고 궤도 우에서 비껴 설려다가 «안돼 안돼 정차 시켜야지»하는 생각이 펀득 들어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넥타이를 휘저으면서 웨쳤습니다.

기동차는 그래도 속력을 멈추지 않고 달려 내려오고 눈보라는 더 몹시 일어났습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세우세요. 빨리!».

영수는 기동차에 치워 죽는다는 무서운 생각도 잊어 버리고 다만 기동차를 구원해야 겠다는 불타는 마음에서 목이 터질 정도로 고래 고래 웨치면서 넥타이를 힘껏 휘저었습니다.

륙십 메터! 오십 메터!

기동차에서도 그제야 영수를 발견한듯 그야말로 아슬 아슬한 찰라에 바로 영수의 코 앞에 와서 «삐국 삐국 왕카당»하고 소리내면서 급히 멎었습니다.

너무도 긴장하였던 영수는 그만 눈 앞이 아찔하여 그 자리에 쓸어졌습니다.

운전사 아저씨와 조수 형님은 기동차에서 급히 뛰여 내려 영수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영수는 기동차며 운전사 아저씨며 조수 형님이 무사한 것을 보

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와 조수 형님은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무지가 쌓인 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영웅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였던 것입니다.

운전사 아저씨는 너무도 감격해서 영수를 꽉 껴안고 《참 고맙다. 너아니더면 큰일 날번 했구나》하며 몹씨 칭찬하시였습니다.

조수 형님도 영수의 손을 으스러져라 하고 덥석 잡아 흔들며 칭찬 하여 주었습니다.

《뭘 그러세요. 요깟것 가지구》.

이렇게 짧막히 한마디 하는 영수의 입'가에는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였을 때 그리고 가장 보람있는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뭇한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맑고 맑은 미소가 빙그레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저씨들 수고 하세요》.

영수는 그들을 도와 함께 눈무지을 치우고 싶었으나 학교에 늦어질 것이 걱정되여 회오리치는 눈보라를 뚫고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독자문예

스키를 타네

강원도 금강군 신원 인민 학교

신 동 식

칼바람 눈보라
휘몰아 처도
우리들은 달리네
스키를 타네.

여름에 뛰놀던
잔디 언덕에
오늘은 제비처럼
스키를 타네.

씽씽 내달리면
땀이 흐르네
든든한 몸 자랑하며
스키를 타네.

갈림'길에서

벼 가을도 거의 끝나고 마을들에서는 탈곡기 소리가 울려 오는 10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이삭 줏기를 끝낸 명숙이네 반 동무들은 저녁 노을을 받아 더 아름다워 보이는 단풍든 고향의 산들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삭 줏기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나라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일이라는 이야기며 분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어느덧 림진강 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산 구비를 돌아 토산읍으로 가는 갈'림길로 나서게 되자 그들은 허줄한 옷차림을 한 낯선 사람이 걸어 가는 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그 사람은 갈림'길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반 동무들은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의 갈림'길에서 갈 길을 몰라 망서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반 동무들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갈 길을 가리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 밖에도 그 사람은 반 동무들을 보더니만 입속 말로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렸습니다.

옥희는 계화더러 《얘, 저이가 술 취한 모양이지?》하고 속삭였습니다.

《글쎄 조금 전까지 멀정하든 사람이 별안간 술이 취할가 뭐》.

반 동무들은 수상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명숙이의 머리에는 언뜻 《우

리의 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원쑤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북반부에 들어와 우리를 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고 하신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이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의 행동을 살피였습니다.

그는 얼마간 비칠비칠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소똥을 줏어 씹더니만 또 엎드려 흙을 핥았습니다.

반 동무들은 어이 없다는 듯이 입을 딱 벌리고 서로 얼굴만 쳐다 보다가《아마 미친 모양이야 그렇지》하며 킥킥 웃어댔습니다.

반 동무들은 수상하기도 하나 불상한 생각도 한편 떠 올라 그에게 친절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더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것을 씹고 핥고했습니다.

반 동무들은 그가 잘 듣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하고 다시 큰 소리로 묻고 있을 때 그의 행동을 날카롭게 살펴보고 있던 명숙이는 깜짝 놀래였습니다.

미친 사람 같이 구는 그 사람의 눈이 매섭게 이리 저리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이의 머리에는 저 사람이 정신 병자로 차린 간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 갔습니다.

명숙이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었고 무서운 생각이 치밀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이는 (나 혼자가 아니라 반동무들이 있지 않는가?)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명숙이는 반 동무들에게 눈짓으로 그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자기는 슬며시 빠져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어느덧 골짜기에는 어둠이 스며 들고 집집마다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학교까지는 1km 남짓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머나 먼 곳 같이 생각되였습니다.

명숙이는 가쁜 숨을 쉬여 가며 지도원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얼마후 부락 자위대 아저씨들의 앞에 서게 된《정신 병자》는 깜짝 놀래여 손을 들었고 낯은 파랗게 질리여 있었습니다. 그리면서도 정신 병자처럼《김 동무 책을 달라!》고 허튼 소리를 쳤습니다.

자위대 아저씨는 곧 그를 군 내무서에 보냈습니다.

그 후 내무서에서, 조사해 본 결과 그 낯 모를 사람은 선거 사업을 파괴하려고 기여 들어온 간첩놈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영숙이와 그의 반 동무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경각성을 높이여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 다지였습니다.

이것은 황북 토사군 북포 인민 학교 1분단 현 명숙 동무와 그의 반 동무들이 간첩을 잡은 이야기입니다.

(최 화 규)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새해는 닥쳐온다.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넘쳐 한 승리의 한해! 이해를 보내는 나의 머리에는 지난날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기 위하여 힘쓰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새롭게 떠 오른다.

4학년에 진급할 때에 최우등을 했다고 나는 만족해 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지난날 일과표를 잘 지키지 못하고 닥치는대로 공부하던 나쁜 버릇도 있었다. 새해부터는 먼저 일과표를 잘 세우고 꼭꼭 그것을 지켜 공부하며 더 많은 책을 읽겠다. 읽은 뒤에는 반드시 일기책에 적어 두며 45분을 귀중히 여겨서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귀담아 들으련다.

분단 위원장으로 일을 잘했다고 영예스럽게도 중앙 민청 영예 등록장에 오른 자랑을 계속 지켜 나가기 위하여 힘쓰겠다.

항상 《소년단》 잡지와 《소년 신문》에서 다른 학교 대 동무들의 모범을 본받겠다. 그리고 나쁜 일은 제때에 고쳐 나가겠다.

이리하여 새해에도 최우등을 하며 소년단 사업을 더욱 즐겁게 꾸려 나가겠다.

무한한 행복 속에서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나는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남반부의 우리와 같은 동무들을 잊지 않는다.

어서 그들과 함께 빛나는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함남 인흥군 련동 인민 학교대
제5분단 리 추 자

—새 명승—

백령대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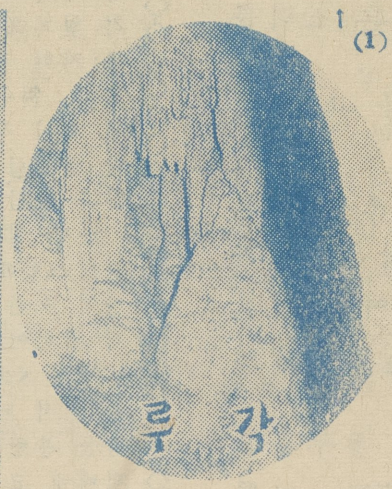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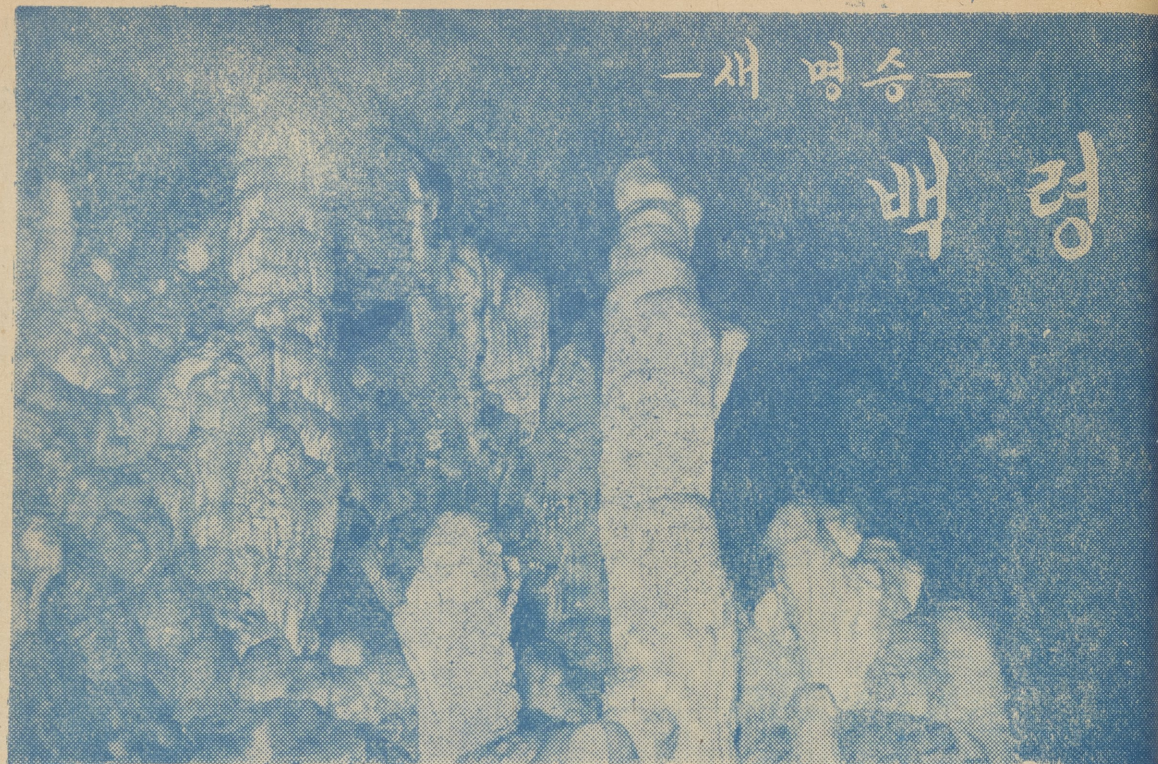
형제탑

루각

봉소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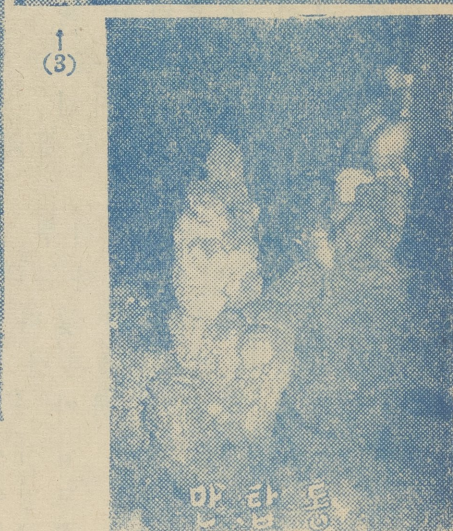
(3)

만달동

아름답기로 이름난 우리 나라에 또 하나의 자랑이 생겼다.

그것은 새로 발견된 백령대굴이다.

금강산이 땅 우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백령대굴은 땅 밑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백령대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지하 금강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동룡굴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

백령대굴은 평북 구장읍에서 북쪽으로 80리가량 떨어진 산 속에 있으며 굴 속은 4천m나 된다. 굴 속은 보통 굴젖이라고 불리우는 종유석, 석순, 석주들로 아름다운 광경들을 이루고 있다.

석순이 만모스와 같이 생긴 만모스탑, 박우물처럼 동그란 바위틈에 초렁초렁 고인 옥같이 맑고 얼음 같이 차서 그 물맛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일품천, 지팽이마냥 주룽주룽 내리드리운 종유석들을 두드리면 피아노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피아노동(사진3), 올망졸망 일어선 석순들이 노래부르고 춤추는 행복한 어린이들의 놀음터와도 같은 아동 궁전 (사진 2), 석주가 거센 폭포처럼 내려 드리운 폭포동, 세 어린이들이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양과도 같은 삼태자탑… 백령대굴은 깊이 들어 갈수록 생김생김이 묘하고 더 아름답다.

금강산의 1만2천봉을 옮겨다 놓은 듯한 흰 색 누른 색의 종유석, 석순, 석주들, 이름짓기에 따라 그 모양도 달라진다는 만물상과 같은 석순들, 선녀들이 목욕하러 오군 했다는 옥녀봉, 명주필 같이 쏟아지는듯한 폭포——이렇듯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 주는 250m의 금강굴 (사진1)도 또한 백령대굴의 자랑이다.

이 백령대굴은 조국의 향토를 사랑하는 평북 구장 고급 중학교 지리 써클원들의 고귀한 로력으로 탐사된 것이다.

백령대굴은 아직도 탐사하지 않은 굴이 여러 갈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백령대굴을 래년부터 인민들에게 보여 주게 된다. 백령대굴로 가는 도로가 훌륭히 닦아지며 굴 안에는 전기가 가설되고 있다.

분단의 위임

최 옥선　　그림 림 영환

형제 나라 대표단이 래일 희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소년단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늦은 저녁에야 분단 열성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애들아, 다른 분단에서두 모두 환영준비를 멋있게 한다는데 우리 분단에서도 누구나 꽃다발을 들고 나가도록 하자…》분단 위원장인 명자가 먼저 말하자 4반을 지도하기로 위임 맡은 길자가

《그럼 요전 열성자 모임에서 위임 맡은 자기 반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자. 우리 반에선 꽃보라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성들은 서로 경쟁하자고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말성 많은 5반을 책임진 보한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얼 물어만 봐도 슬슬 피하는 애들이 오늘저녁 모이기나 할가? 그렇다구 이 일을 못하겠다구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한 보한이는 어느 열성자보다 먼저 나와 5반 동무들이 있는 품무'골로 갔습니다. 숨이 차게 뛰여간 보한이는 반장인 임춘이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나 임춘이는 이미 어디 갔는지 없었고 반 동무들 중에서도 다만 명화와 옥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한이는 옥희와 명화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반 동무들을 찾아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큰 외등이 환히 비치는 영화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영화는 이미 시작되여 고요한데 반동무들은 외등 밑에서 《별》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 동무들을 쉽게 찾은 보한이는 기뻤습니다《임춘아! 광자야!》. 번갈아 부르며 그들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영화관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방금까지 놀던 동무들의 그림자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보한이의 목소리를 들은 동무들은 놀던 것을 건어 치우고《보한이가 온다 얘들아!》하며 뿔뿔이 헤여져 골목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와진 보한이는 또 한번 큰소리로 동무들을 불러보았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애들은 내가 뒤나 캐려 다니는 줄로 알고 있어, 왜 그럴가?》하고 옥희와 명화를 바라보았습니다.

《5반이 벽보에 나타난 다음부터 너를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단다》하고 옥희가 말했습니다.

벽보 편집 위원인 보한이가 전달 분단 벽보에 《학습을 게을리 하는 5반 동무들》이란 제목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고 선생님에게 허튼 대답을 하는 만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 보한이가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옥희의 말을 듣고 있던 보한이는《나 그럼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래일 반 동무들이 가지고 나갈 꽃다발을 만들테야》하며 울움이 북바친 자기 얼굴을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보한이를 바라보던 옥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서리고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 숨어서 보한이의 거동만 살피던 임춘이가 뛰여 나오자 모두 술렁술렁 따라 나오며 《…보한이가 분단에 일러 바칠라구 그러지! 또 벽보에 실릴 거야》하고 웅성 거리며 옥희와 명화를 둘러쌌습니다.

옥희와 명화는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몰라 《아니야 그런게 아니야》하며 오늘 저녁 보한이가 찾아온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런걸 우리가 숨었드랬지, 그래두 뭐 할 수 없다고 돌아간 보한이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니…?》하고 동무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보한이가 성나서 그러는 것두 아니야 우리반에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하려구 그러는거지 뭐. 그애는 우리가 들고 나갈 건데두 그렇게 애쓰지 않니?》.

명화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보한이가 간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보한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혼자라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분단 사업을 잘 하는게 못될거야 내가 맡은 위임을 잘 하자면 어떻든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말하여 그들과 같이 일을 해야만 될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보한이는 가던 길을 되돌아 달려왔습니다.

반 동무들은 보한이가 달려오고 있건만 이번에는 아무도 숨지 않았습니다.

× ×

이튿날 아침이였습니다 보한이를 둘러싼 5반 동무들은 신이 나서 이쁜 꽃다발을 내흔들며 학교로 왔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야! 5반 꽃다발은 정말 멋있구나》하며 저마끔 만저보는 것입니다.

분단 동무들이 부러워하는 말에 반 동무들도 기뻐했지만 보한이는 분단의 위임을 충실히 실행한 자랑에 가득찼습니다.

회천 제1 인민 학교 대 4분단에서

량강도 갑산 제 1중학교 대(인민반)에서

《우리는 신해방 지구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곳에는 우리 나라의 자랑인 인삼이 많이 나는 곳이예요.

그러나 그곳처럼 나무가 많지는 못해요.

갑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곳—이렇게 생각하군 해요. …우리가 인삼을 사랑하듯이 동무들은 우리 나라의 건설에 귀중한 나무들을 사랑하며 나무들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있을 줄 믿어요》.

이것은 지난 9월 초 개성시 사직 인민 학교 대 제10 분단 동무들이 이 학교 대 제10 분단에 보내온 첫번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날 분단 동무들은 한없는 기쁨과 함께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많은 곳에 살면서도 나무를 귀중히 여길 줄 몰랐고 고향 마을에 있는 나무의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였습니다.

《얘 이것 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가?…우리 고향의 자랑인 나무들을 연구하는 크루쇼크를 조직하는게…그리고 개성 동무들에게 나무 표본을 선물로 보내 주는 것이…》. 늘 분단에서 꾀동이라고 불리우는 김영철 동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참 좋을 것 같다. 이 편지를 봐.—동무들은 나무를 사랑하며 나무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있을 줄 믿어요—라고 써 있지 않아》.

《응 참 좋겠다》.

모두들 크루쇼크를 조직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 10분단에서 생각해 낸 좋은 의견은 대 위원

회에서 의논되고 그리하여 10분단 동무들이 중심이 되여 첫 림산 크루쇼크를 조직하게 되였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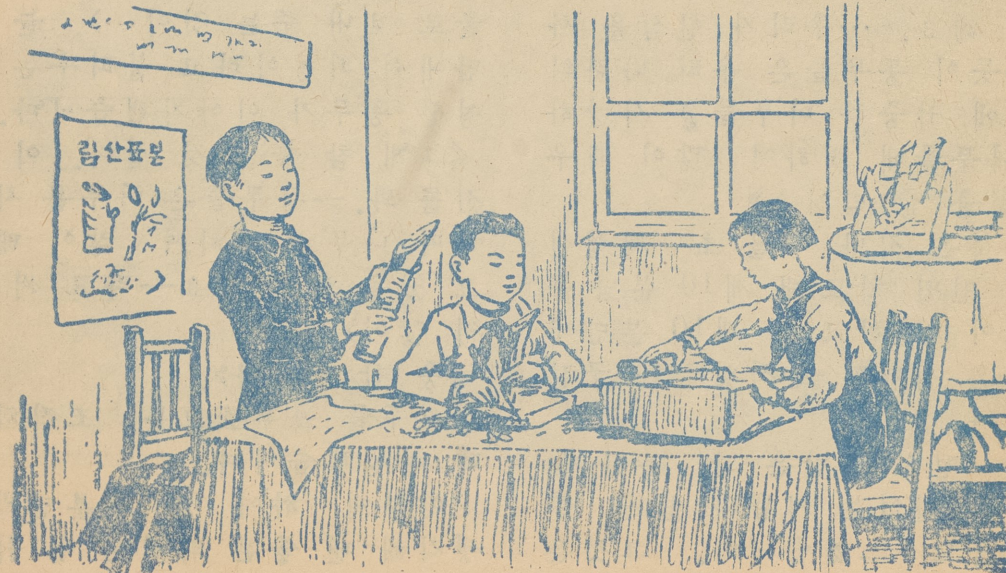
《이것을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을가?》.

《한칸에 하나씩 넣는 것이 좋겠구나!》.

박 근만 동무와 문 필권 동무는 엇비슷이 짜른 나무 표본에 이름을 써 붙인 다음 하나 하나 표본함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머리를 끼우뚱하고 옆에서 바라보던 김 계순 동무는

《얘들아 내 생각 같애선 락엽수와 침엽수를 갈라 넣고 그 나무 잎사귀도 함께 넣으면 좋을 것 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따사로운 해'빛이 스며 드는 아늑한 교실 창'가에 옹기 종기 모여 앉아 표본을 만드는 크루쇼크원들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지난 가을 방학 이들은 첫 등산에서 먼저 나무 잎사귀들을 수집했고 그후 계속해서 자기 고향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의 표본을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크루쇼크에서는 크루쇼크 벽신문을 만들고 《우리 고향 마을에 있는 나무들》 《겨울에도 잎사귀가 있는 나무와 잎사귀가 떨어지는 나무》 《나무의 나이는 무엇으로 아는가요》 등의 제목으로 자기들이 배운 것을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도 줍니다. 그리고 《산림과 우리 생활》 《나무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어떻게 쓰이는가》 등 크루쇼크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향의 산들로 등산을 하며 나무 표본을 만들며 연구하는 동안에 이들은 여러가지 식물들의 생활 식물과 동물들과의 관계 식물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 ×

겨울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크루쇼크 모임에서

《선생님 바늘만치 작은 나무도 물에 가라앉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말인가요》.

박 수자 동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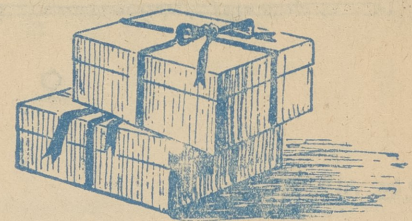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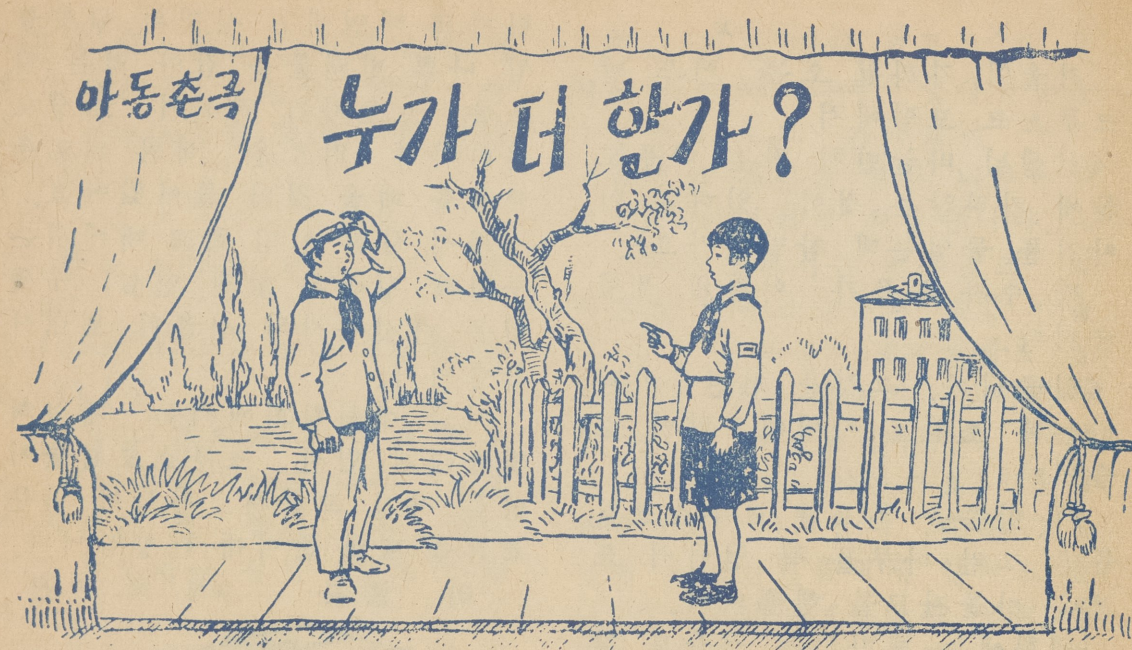
《있습니다. 그것을 천년죽이라 하는데 보천보 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난 크루쇼크원들은 그런 나무를 꼭 얻어서 표본을 만들자고들 했습니다.

계획에는 재미있는 것들도 많지요. 거기에는 수차기'골에 있다는 나무의 화석을 찾아가 볼 것과 길주 팔프 공장에서 종이가 되기까지의 제품 표본도 마련하고 래년에는 산림의 원쑤들인 나쁜 벌레들을 잡아 먹는 익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도 준비하며 리로운 새와 해로운 새들을 배울 것이 들어있어요.

개성 사직 인민 학교 대에서는 두번째 편지와 함께 인삼, 수세미등 다섯가지의 선물이 보내여 왔습니다.

지금 대위원회에서는 개성의 벗들에게 림산 크루쇼크원들이 만든 자기 고향의 자랑인 나무 표본을 보낼 준비에 한창입니다.

리 종근 그림 최 한진

영, 불,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를 빼앗으려고 애급에 쳐들어 갔었다.
애급 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은 침략자들이 애급 땅에서 당장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

오 은 렬

나오는 사람들

영자 분단위원

순석

무대

학교 앞 뜰

—막이 오르면—

△ 영자가 서 있는 곳으로 순석이가 달려 온다.

순 석 얘 영자야, 분단 모임은 어떻게 됐냐?

영 자 다 끝난지도 오래다 원.

순 석 벌써 다 끝났어? 에잇 분해라.

영 자 늦었으면 잘못됐다구 할 게지, 뭐 변명을 해 보려구?

순 석 남의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그래. (몹시 분한듯) 체, 거참…….

영 자 오늘 모임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다는 걸 알기나 했니?

순 석 알지 않구, 시간을 아낄데 대해서 의논한다구 그러지 않언?

영 자 그런데 어째서 늦었냐말이야?

순 석 늦구 싶어서 늦었나머.

영 자 그럼 왜 늦었니?

순 석 난 멋이 있는 재료를 얻었거든.

영 자 재료?

순 석 비판할 재료 말이야.

영 자 누굴 비판해?

순 석 정수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역시 분하다는 듯이) 거참!

영 자 뭣 때문에 비판을 해?

순 석 내가 우리 분단 모임에서 어떤 걸 가지구 말을 할가 하고 생각하면서 오는데……

영 자 그래서?

순 석 정수네 집 앞까지 와서…

영 자 정수가 좀 어떻든?

순 석 (역정을 내며) 아 내 말을 좀 들으라는데.

영 자 그래, 어서 계속해라.

순 석 정수가 말야 닭 쌈 하는 걸 멍청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구 있겠지.

영 자 닭이 쌈하는걸?

순 석 그럼. 그래서 난 정수가 얼마나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가를 보기로 했지. 아 그랬더니 한 시간이나 그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겐? 그러니 그야말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게지 뭐냐.

영 자 아니, 그걸 멍청해서 보고 있던 너는 어떻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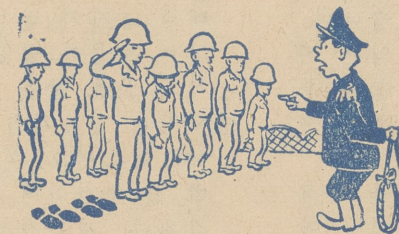
순 석 나? (어쩔 줄을 몰라한다)

영 자 정수는 다리가 아파서 분단 모임에 못 온다고 미리 이야기가 있었어.

순 석 정말? 그런걸 난 또….

영 자 남의 잘못만 찾으려다가 시간을 헛되게 보낸건 너야 너.

—막—

"남조선에서" 졸병잃은 허수아비 장교

(1)--모두 모였느냐?
--두사람 도망……

(2)--어디가서 두놈 붙잡아 와야겠다.

(3)—봉창은커녕 절반이 도망쳤구나.

(4)--에라, 닥치는 대로 몽땅 붙들어 와야겠다.

(5)--아이쿠 이젠 한놈도 안남았구나?

별을 마신 송서방

박 인 범　　그림 림영환

어느 농사짓는 마을이였습니다. 따뜻한 봄철이 찾아 들면 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투어 자기네 밭을 갈아 번지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마다 남의 곡식보다 더 잘되게 하겠다고 논김도 매고 밭김도 매였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곡식이 탐스럽게 익는 가을이 되면 봄부터 땀 흘려 일해 놓은 곡식을 저마다 자랑스럽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해 전부터 이 마을 송서방네 밭 곡식과 논 곡식들은 이 마을 어느 누구네 것보다도 잘 되였습니다.

다른 사람네 수수는 다섯 이삭을 털어서 한 되가 되였는데 송서방네 수수는 두이삭만 털면 한 되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도 다른 사람네는 자잘한 것이 두세 이삭 달렸지만 송서방네 옥수수는 팔뚝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부러워서

«송서방은 무슨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길래 그렇게 잘 되였소?».

하고 물어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송서방은 자기의 농사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해가 지나도 이 마을에서는 송서방네 곡식처럼 잘된 곡식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부터 생겨난 말인지는 몰라도

—송서방은 별난 것을 먹고 마신다지,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데—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느날 송서방을 찾아가서

«아 여보시오, 대체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밭 곡식이며 논 곡식이 해마다 남의 것보다 몇갑절씩 잘 됩니까? 무슨 이상한 것을 잡수신다는 말이 도는데 그 말이 정말입니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송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나는 별을 마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자—저것 봐, 글쎄 송서방은 사람의 탈을 쓰고 농사는 짓고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걸 우리들이 본을 뜨겠다구? 어림도 없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어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니 여보슈, 하늘에 있는 별을 어떻게 따다가 마신단 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송서방은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 속에도 있드군요. 나는 그 별을 마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여전히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중에서는

«저 사람이 사람을 놀리는 건가? 바가지 속에 별이 있다니? 미친 사람이로군…».

하고 역정이 나서 횡여케 집으로 달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알고야 말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보슈, 그럼 얼마나 큰 바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그런 별이 떨어집니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송서방은 여전히 웃으며

«그야 어떤 바가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갈 것은 없고 새벽이나 저녁에 자기네 밭머리 옹당샘 물을 뜨면 그 바가지에 별이 보이드군요 그것을 나는 마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남았던 사람들은

«옳지!! 과연 그렇군!!».

하고 무릎을 치더니 자신 있는 낯을 하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 이동리에서도 제일 먼곳에 사는 로서방은

—아니 그래도 그 별을 마시는데는 무슨 방법이 있을테지, 그렇게 쉽게 되는일이 어디 있나…?—

하고 생각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송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슈, 송서방 그래도 그 별을 마시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별을 마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노릇도 있겠지요? 그러구 몇번이나 마시는 것인지……어디 말만 듣고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는 당신이 일러 주시는 대로 할테니 당신이 별을 마실때 나도 함께 마시게 해주시구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송서방은 반가히 로서방의 손을 잡으며

«그럽시다. 우리 같이 별을 마십시다».

하고 서로 만날 장소와 시간이며 준비해 가지고 올 것들을 약속한 후 헤여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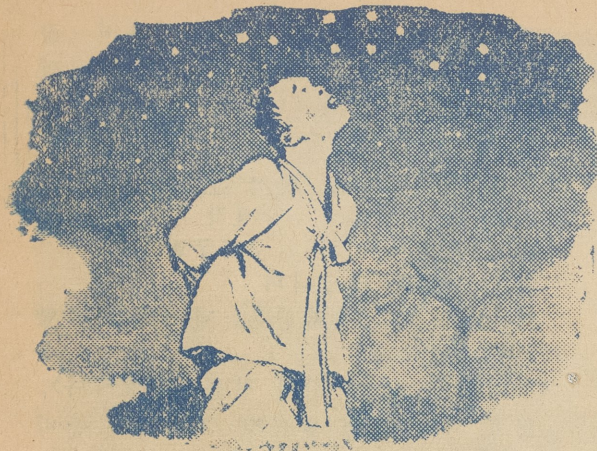
송서방에게 물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맨 처음 돌아간 사람들은

«팔뚝만한 옥수수를 주렁주렁 달리게 하다니, 송서방 같은 특별한 사람이나 할 일이지, 우리네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야».

하고 애초부터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서방에게 물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두번째로 돌아간 사람들은 은근히 산 속으로, 혹은 시내'가 모래밭으로 돌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송서방이 미치기는 했지만 아닌게 아니라 별찌라도 먹기는 먹었을게야. 별은 안떨어져도 별찌는 떨어지니까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만지던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가꾸면 틀림 없이 곡식은 잘 될거야——

이렇게 짐작한 끝에 밤이면 늦도록 별찌가 지는 하늘을 보고 기억해 두었다가 이튿날 해가 뜨면 그곳으로 별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본일 없는 별찌를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송서방에게 물으러 갔던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세번째로 돌아간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자신 있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바람으로 우'물로 나가서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바가지 속에 물이 잔잔해지자 참말 바가지 속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옳지! 이것을 마시면 래년 농사가 잘 될테지——

하고 한 바가지씩 벌컥벌컥 랭수를 마시고는 어서 그해 겨울이 지나기만 기달렸습니다.

그러나 로서방은 약속한 새벽 시간에 송서방을 찾아 갔습니다.

송서방은 로서방을 다리고 새벽 이슬을 헤치며 논과 밭들이 있는 벌로 갔습니다.

송서방은 가지고간 바가지를 밭머리에 있는 옹당샘 물 우에 띄워놓고 곧 광이로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로서방도 가지고간 광이로 자기네 밭으로 가서 땅을 파일궜습니다.

한 두렁을 파고 두 두렁을 파고 쉬지도 않고 세두렁, 네두렁을 팠습니다.

로서방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송서방의 이마에서도 땀이 흘렀습니다.

로서방은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로서방은 밭 파던 광이를 꽂아두고 마침내 옹당샘으로 달려 갔습니다.

로서방은 바가지로 우'물 물을 듬뿍 퍼서 단숨에 마시였습니다.

송서방은 이런 것을 보았는지 못보았는지 열마만에 일하던 손을 멈추더니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여보 로서방, 좀 쉬였다가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합시다》.

하고 옹당샘으로 가서 물 한바가지를

떠서 달게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로서방은

—앗차 내가 시간도 되기 전에 물을 마시였구나. 바가지 속에 별이 떴든가? 안 떴든가…? 이거 큰일 났군!!—

하고 걱정하던 끝에 힘없는 걸음으로 송서방에게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섰던 송서방은

《로서방 걱정마시우, 당신이 마신 물에는 틀림 없이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것보시우, 새벽 하늘에 저렇게 뭇별이 총총한데 별 빛이 바가지에 비치지 않을리가 있소. 이리 앉아서 내 얘기나 좀 들으시우》.

하면서 담배 한대를 붙여 물더니 뜨적뜨적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힘을 써서 할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게 하는 약은 어느 세상에도 없습니다.

남의 좋은 것을 보고는 부러워만 말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운다는 것은 알맹이를 배워야지 날림으로 배워서야 아모 쓸데도 없지요.

몇해 전부터 나는 동리사람들께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건만, 아직도 내 농사를 못따릅니다.

나는 가을에 곡식을 걷어 들인 그 이튿날 새벽부터 다시 그 이듬해 가을 추수하는 날 늦은 저녁까지 꾸준히 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씨앗도 고르고 벌레도 잡고 했습니다. 그러느라면 저절로 땀도 흐르고 목도 말라서 새벽 별이 떠 있는 샘물도 마셨고 저녁이면 저녁 별이 떠있는 물을 마시기도 한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래년 가을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것뿐이지요》.

이 말을 듣던 로서방은

《그렇지, 알았소이다. 물에 뜬 별을 마시고 안마시고가 무슨 상관이 있을리가 있나? 알았소이다. 이젠 나도 송서방 같은 꾸준한 사람이 되겠소》.

하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로서방은 일년 열두달 송서방처럼 새벽 별이 비치는 물에 손발을 씻었습니다. 또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가을에는 송서방과 같이 동리 다른 사람의 곡식 보다 몇 갑절이나 더 걷우게 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마을에는 참으로 별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 늘고 늘어서 온 마을은 드디어 잘사는 동리로 되였습니다.

고삐 쥔 량반

우봉준 글
남현주 그림

(1) 노새 등 우에 올라 탄 주인과 고삐잡은 하인 두 사람이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하인은 길'가에 열린 머루 덩굴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인은 호주머니가 불룩하도록 머루를 따 넣었습니다. 배 고프든 판이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걸어갑니다

(2) 노새를 타고 가는 주인은 자기도 머루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아 하인에게 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주 크게 하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다리가 아푸지, 잠시 여기 올라타렴》.

(3) 하인을 노새 등 우에 앉힌 주인은 하인 대신 자기가 고삐를 잡고 갑니다. 자기도 머루를 싫건 따먹자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길 옆에는 머루 덩굴을 좀처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머루 덩굴이 우거진 숲은 끝이 났든 것입니다.

(4) 얼마쯤 가다가 노새 등에 탄 하인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빨간 감을 맛있게 따먹는 것이였습니다.

주인은 자기도 손을 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감나무 가지가 땅 우에서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하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애야 이젠 좀 내려라, 다리가 아파 못 걷겠구나》.

(5) 이번에는 주인이 노새 우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따 먹으려든 감나무는 길섶에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감나무 동산은 벌써 끝이 나고 없었으니까요.

주인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갔습니다.

(6) 한참을 가다가 그들은 강물을 만났습니다. 나루'배도 없고 하여 두 사람 다 옷을 훌훌 벗어 노새 등에 얹고 첨벙 첨벙 물을 건느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살이 세찬 곳에 와서 하인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노새 고삐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저 혼자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7) 강을 다 건너 온 주인과 하인은 할 수 없이 발가숭이로 길을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멀리 길 우에 누더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히 가보니 그것은 노새 등에 얹었던 하인의 옷이였습니다.

(8) 량반은 하인의 옷을 주어 올리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량반 체면에 발가 벗고 갈 수야 있나, 이건 내가 입어야 하겠네》.

하인은 할 수 없이 자기 옷을 주인에게 앗기우고 말았습니다.

(9) 하인의 옷을 입은 주인과 발가 벗은 하인은 인가를 피하여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노라니까 길'가 정자나무 아래에 노새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히 뛰여간 주인은 서둘러 자기 옷을 갈아 입으려 했습니다. 이때 어디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제길 사람들이 보는데서 옷을 갈아 입을 수야 없지, 림시로 자네가 내옷을 입어 두게》.

(10) 하인은 주인의 옷을 입고 노새 고삐를 잡았고 하인의 옷을 입은 주인은 노새 등에 올라 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한떼의 행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허 량반이 고삐를 잡다니》.

《야 이 뻔뻔스런 놈아, 냉큼 내려서 량반을 앉히우지 못할가》.

주인은 할 수 없이 노새 등에서 내렸습니다.

(11) 주인의 옷을 입은 하인이 노새를 타고 하인의 옷을 입은 주인은 고삐를 잡고 갑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허 노새 탄 량반의 신수가 훤한걸》.

《하인 녀석은 노새 모는 잡두리가 패 서툴러 뵈는데》.

주인은 부아통이 터질 지경이였으나 이 사정을 이야기 할 수도 또 길 우에서 옷을 갈아 입을 수도 없어서 하인의 옷을 입은채 고삐를 잡고 터덜터덜 걸어 갔습니다. 《어서 밤이 와야 할텐데》 생각하면서

못본체해 나쁘대요

나는 나는 좋은 사람, 동무들을 사랑해요.
공원에 심은 나무 슬금 살짝 꺾어다가
영남이가 고무총 만드는것 보았지만—
이런 일은 모임에서 열성자나 말할 일
나는 나는 동무들을 성가시게 안굴지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동무들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동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잘못된것 보고서도 못본체해 나쁘대요.

나는 나는 좋은 사람, 동무들을 사랑해요.
옥순이는 밤마다 영화보러 쏘다니다
숙제푼건 남의 것만 베끼는 줄 잘알지만—
이런 일은 선생님이 톡톡히 혼내 줄일…
나는 나는 동무들이 듣기 싫은 말은 않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동무들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동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잘못된것 보고서 못본체해 나쁘대요.

나는 나는 좋은 사람, 동무들을 사랑해요.
학교에서 돌아올때 뛸잘뛰는 정남이가
달리는 빠스뒤에 매달린것 보았지만—
이런 일은 내무원 아저씨가 야단칠 일…
나는 나는 동무들과 의 상할 일 안하지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동무들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동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잘못된것 보고서도 못본체 해 나쁘대요

일요일 아침에

앞 집에서

뒤'집에서

좀 더 자도 괜찮아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뭐…

—벌써 일어 났느냐?
—이렇게 아침에 할 일이 있잖아요!

칭찬 받는 동무

언제나 신흥 협동 조합 마을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 체조를 하고 자기 집의 뜰을 쓸며 마을의 길'가도 청소하는 소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이나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를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까뜻이 합니다.

이렇게 웃'어른을 존경하고 또 어린 동생들을 사랑합니다.

아침에 미처 세수도 못하고 오는 1학년 동생들이 있으면 개굴에서 세수를 시켜주며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학교에 데리고 다닙니다.

학교에서도 언제나 먼저 바께쯔를 들고 나가서 소제할 물을 떠다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학교에 갈 때면 《학교에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하고 부모들에게도 인사를 잘 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나 마을에서나 동무들에게서 훌륭한 애라고 칭찬 받는 우리학교 리 한형 동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남 벽성군 월현 인민학교
대위원장 오 진석

문제 풀이

(1)어떤 목장에 염소가 많이 있는데 뿔과 다리를 모두 합하면 1,000개랍니다. 그중 뿔 없는 염소가 한마리 끼워 있지요. 염소는 모두 몇마리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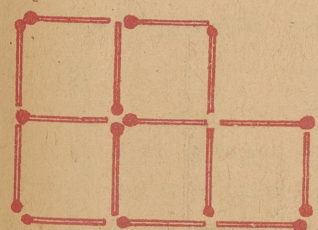
(2)그림과 같이 한 우리에 한마리씩 여섯마리의 이리가 여섯개의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우리는 열 세개의 성냥가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성냥 가치 하나를 뽑아 버렸습니다. 금방 이리가 뛰여 나오게 되였습니다.

빨리 남은 열 두개의 성냥 가치로 여섯 칸의 우리를 만들어 한 칸에 한 마리씩 잡아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열 두개의 성냥 가치로 여섯칸의 우리를 만들겠어요?

(3)그림과 같이 열 다섯개의 성냥 가치로 정방형 다섯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성냥 가치 셋을 떼여 내고 정방형 세개가 남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것을 떼여 내야 할가요?

빠스에서

《원, 기특하다구야!》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의주 제3 인민 학교 소년단원인 리 병룡과 김 기선 동무를 연신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일요일 신의주부터 남신의주로 가는 빠스에서 로인들에게 자리를 내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깐 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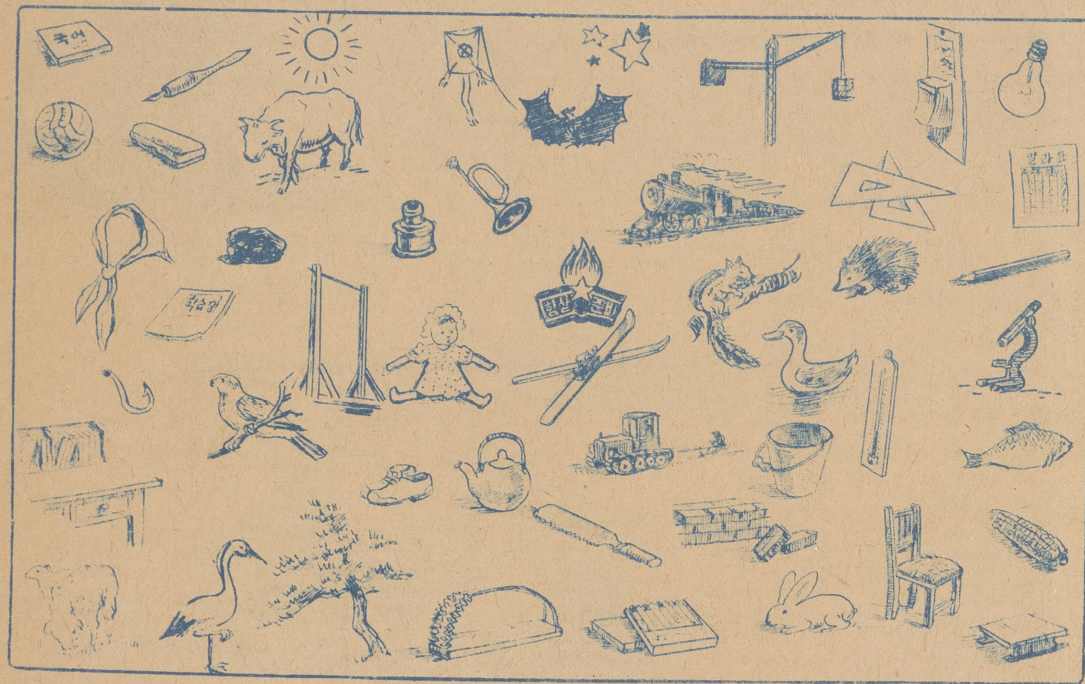
1. —애. 썰매 타러 너도 가자!
—난 추워서 싫어!

2. 이건 막 땀이 흐르는데 넌 그렇게 입고도 춥니?
—그럼—머

누가 더 많이 외우는가

동무들!

다음 그림들을 잠간 동안(시간은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들여다 보고 무엇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요. 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그림을 덮어 놓고 누가 더 많이 외웠는가를 내기하십시요.

그리고 학용품만 많이 외이기, 동물만 많이 외우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1) 놓고도 들고 가는 것이 무엇?

(2) 바다에서 나서 강에와 자라고 다시 바다에가 죽는 동물이 무엇?

(3) 검은 옷을 벗고 돌 틈에 비껴 섰다가 털 문을 지나고 나무 문을 지나고 쇠 문을 나와서 더운 물에 목욕하고 또 찬 물에 목욕하고 갈'대 발에 누워 있는 것이 무엇?

(4) 날짐승도 아닌 날개 가진 짐승이 밤하늘을 나르는건 무엇

(5) 하늘에선 떠다니고 땅에선 흐르기도 하고 굳어지면 깨지기도 하는 것이 무엇?

(6) 날개 쭉진 있지만 날지도 않고 발은 없지만 달리는데는 제일 가는 선수가 무엇?

※ 10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탈곡기는 9회, 선풍기는 3회를 돕니다. 그리고 선풍기의 직경 30cm를 $\frac{1}{6}$ 로 주리여 직경 5cm로 만들면 됩니다.

(중국 하북성 산해관 초등 학원 강 윤선 동무의 해답)

당 선 자

중국 하북성 산해관 초등 학원	강 윤 선
함북도 화대군 주의 인민 학교	김 옥 희
강원도 세포군 내평 인민 학교	한 경 숙
함남도 함흥시 제4중 (인민반)	최 성 주
함남도 신포군 부창 인민 학교	라 국 웅
자강도 고풍군 삼평 인민 학교	차 영 길
자강도 화평군 제4중 (인민반)	오 동 주
평남도 룡강군 월매 인민 학교	림 수 자
평남도 순천군 제 1 인민 학교	오 화 순
황북도 장풍군 삼거 인민 학교	최 병 길
황북도 린산군 주암 인민 학교	리 양 표
황남도 재령군 굴해 인민 학교	김 선 옥
황남도 연안군 라진포 인민 학교	장 석 건
개성지구 판문군 판문 인민 학교	김 영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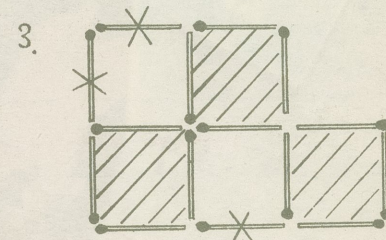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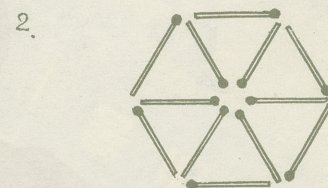
수수께끼 해답

1, 총
2, 뱀 장 어
3, 모밀 국수
4, 박 쥐
5, 물
6, 물'고 기

문제 풀이 해답

1. $1000 \div (4+2) = 166 \cdots 4$ 이기 때문에 뿔 없는 염소까지 167마리입니다.

2.

3.

앞표지… 팽이 치기…… 김 진항 그림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12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12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12 호 총(87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301 값 25원 52,170부 발행

혁명의 꽃봉오리

해방전 아동문학 작품 선집

별나라

민주청년사

1956

남강마을의 횃불

동화집 2

새로 생긴 전설

시내물

동화집 1

활쏘는 아이들

새 마 을

소년소설집

어머니의 품

민주청년사

리원우 아동문학 작품집

기다리던 날

민주청년사

금향아리